

‘2연승’ 티즈플랜 vs ‘1800m 무패’ 슈퍼삭스

1800m 장거리·상급 1억1000만원
대통령배·그랑프리 승점 걸린 경주
로드위너·구통사·위너폴드 등 복병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 서울 경마공원에서 23일 제10경주로 1등급 경주마의 1800m 레이스가 펼쳐진다. 총상금은 1억1000만 원이다. 대통령배와 그랑프리의 출전 승점이 부여되는 Road to G1 챔피언십 경주이자, 장거리 적성마를 가리는 스테이어시리즈(헤럴드경제배, YTN 배, 부산광역시장배, 코리아컵)의 출전 승점이 걸린 스테이어 챌린지 경주다. 3연승에 도전하는 티즈플랜, 1800m에서 우승을 놓친 적 없는 슈퍼삭스 등이 출전한다.

●**티즈플랜**(수, 5세, 미국, 레이팅 120, 권경자 마주, 박재우 조교사, 승률 56.3%, 복승률 56.3%)

한국대표 스프린터 블루치퍼의 형제마다. 1등급 승급 후 출전한 5번의 일반 경주 모두 장거리로, 이중 4번을 1위로 들어왔다. 최근 두 경기 연속 우승으로 좋은 기세를 보여 레이팅이 120까지 치솟았다. 문학치프, 가운첼프에 이어 서울 5세마 중 3번째로 레이팅이 높다. 현



23일 서울 경마공원 제10경주로 열리는 스테이어 챌린지 경주에서 3연승에 도전하는 티즈플랜.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재 다승 2위인 박재우 조교사의 상승세와 겹쳐 시너지가 기대된다.

●**슈퍼삭스**(거, 5세, 미국, 레이팅 98, 김창식 마주, 리카디 조교사, 승률 46.7%, 복승률 46.7%)

1800m에서는 한 번도 우승을 놓쳐본 적이 없다. 2019년 이후 출전한 10번의 경주에서 모두 순위상금을 획득했다. 1등급 승급 후 5위와 4위로 잠시 주춤했으

나, 점차 안정적인 경주전개를 보여주며 적응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트레이너스컵에서 심장의고동, 삼성불패 등 쟁쟁한 경주마를 제치고 5마신 차의 여유로운 모습으로 우승했다.

●**로드위너**(수, 5세, 미국, 레이팅 112, 표중순 마주, 최용구 조교사, 승률 53.8%, 복승률 61.5%)

지난해 4월부터 8개월간 휴식을 가진

뒤 올해 다시 스포트를 올릴 태세다. 안토니오 기수와 호흡을 맞춘 세 경주에서 모두 승리하는 찰떡궁합을 보여줬다. 12번의 경주 중 10번의 순위상금을 획득했다. 이번경주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통사**(거, 6세, 한국(포), 레이팅 100, 소태영 마주, 전승규 조교사, 승률 30.8%, 복승률 38.5%)

지난해부터 꾸준히 장거리에 출전했다. 최근 경기는 지난해 11월 스포츠월드배 경주로, 이번 경주 우승후보인 슈퍼삭스를 제치고 우승했다. 당시 여유롭게 우승해 전승규 조교사 마방의 최강마임을 입증했다. 김용근 기수와 첫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위너폴드**(수, 5세, 미국, 레이팅 113, 전영범 마주, 우창구 조교사, 승률 40.0%, 복승률 60.0%)

1800m 평균 기록이 1분 55.2초로 출전마 중 가장 빠르다. 2017년 데뷔 직후 단거리에서 5연승을 거뒀다. 2018년도 10월부터 장거리 경주 위주로 출전했으며, 높은 복승률이 보여주듯 꾸준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경주에서는 박태종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경마·토토

9

2020년 2월 21·22일 주말판

스포츠동아

아시아경마회의서 경마사업 성과 공유

아시아경마연맹(ARF)이 주관하는 제38회 아시아경마회의(ARC)가 18일부터 22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다. 이번 아시아경마회의는 ‘잠재력 발현’(Unlocking Potential)이라는 주제로 회원국 간 아시아 경마 발전을 위한 전략과 성과를 공유한다. 한국마사회는 출장단을 파견해 ‘ARF 불법경마 대응 TF’를 비롯한 발매, 경주상품 기획, 홍보·마케팅 등 각 분과별 회의에 참가하고, 경마 사업 벤치마킹 및 수출 사업 협의 등 회원국과의 유대관계 강화에 나선다. 또한 유승호 한국마사회 해외사업처장이 ‘한국경마의 국제적 발전 및 향후 주요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마사회, 6년 연속 교육기부 우수기관

한국마사회는 교육부로부터 6년 연속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지정됐다. 한국마사회는 말산업 진로직업체험, 찾아가는 진로 교육, 말산업 직업인의 특강 등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들에게 말산업 진로탐색과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말산업 진로직업체험은 전문해설사와 함께 말산업 시설을 견학하며 관련 직업군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2014년부터 진행해 6년간 3만 명 이상의 학생 및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했다. 말산업 직업인의 특강은 승마코치, 장제사, 수의사 등 말산업 주요 현업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편집 | 김태권 기자 bong82@donga.com



재활승마 무료 강습 모습.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마사회, 장애인 대상 재활승마 26일까지 모집

1차 과천점 강습생 28명 모집
신체·심리적 치유에 큰 도움

“말을 통한 신체·심리적 치유를 선물합니다.”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말을 통해 장애인의 신체·심리적 치유를 돕는 재활승마 무료 강습생을 26일까지 모집한다.

2009년도 시작된 재활승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국마사회 대표 사회

공헌 사업이다. 지난해 마사회 직영 재활힐링승마센터를 통해 174명의 강습생들이 참여했다. 올해는 제주 직영점에서도 재활승마를 실시해 전년 대비 15% 증가한 200명이 참가한다.

1차 과천점 강습생 모집은 28명이며, 장애인등록증을 보유한 만 6~30세의 신장 180cm, 체중 70kg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1차 강습은 3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이며, 2인이 팀을 이루어 매주 1회씩 총 8회의 강습을 받는다. 신청은 26일 오후

2시까지 이메일(healing@kra.co.kr)로 받는다. 세부사항은 말산업정보포털 홈페이지(www.horsepia.com)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 직영점의 재활승마 강습생 12명도 동일한 일정으로 공모 중에 있다. 제주 직영점은 3월 중 강습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해 재활승마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며 “사회 안전을 위해 희생하는 사회공익직군 4000명에게 시행한 힐링승마를 일반 국민에게도 확대해 9000여 명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용운 기자



축구팬 55% “SON 없는 토트넘, 첼시전 힘들 것”

축구토토 승무패 8회차 중간집계
세필드·번리 승리 70% 이상 기록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22~24일 벌어지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7경기과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라리가) 7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한 축구토토 승무패 8회차 첼시-토트넘(2경기)전에서 국내 축구팬들의 55.22%가 홈팀 첼시의 우세를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팀의 무승부 예측은 23.72%로 나타났고, 원정팀 토트넘의 승리 예상은 21.06%로 집계됐다.

EPL 상위권 팀인 첼시와 토트넘의 맞대결이 펼쳐진다. 첼시는 승점 41점(12승5무9패)으로 리그 4위에 올라있고, 토트넘은 승점 40점(11승7무8패)으로 그 뒤를 쫓고 있다.

첼시는 최근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1월 11일 번리전 이후 치른 네 경기에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다. 반면 토트넘은 리그 3연승을 질주하고 있다.

다만 순항하던 토트넘에게 약재가 생겼다. 16일 애스턴빌라전에서 손흥민이 오른 팔 골절상을 당했다. 팀에 큰 힘이 되던 손

흥민은 앞으로 2~3개월간 경기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제 토트넘은 해리 케인에 이어 손흥민까지 잃게 되면서 공격력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와 더불어 세필드 유나이티드(73.75%)와 번리(70.85%)가 70% 이상의 높은 투표율이 집계돼 무난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사우샘프턴 역시 60.78%의 승리예상을 차지했다.

라리가에서는 비야레알과 경기를 펼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AT마드리드)의 승리예상이 60.49%로 집계돼 이번 회차 라리가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양팀의 무승부 예측은 24.20%, 비야레알의 승리예상은 15.31%에 그쳤다.

AT마드리드는 비야레알과의 승점 경쟁에서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 AT마드리드는 현재 승점 40점(10승10무4패)으로 리그 4위에 올라있고, 비야레알은 승점 38점(11승5무8패)으로 6위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헤타페(59.38%), 셀타데비고(58.20%), 바야돌리드(52.57%)도 과반 이상의 투표율을 얻어 우세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승무패 8회차는 22일 오후 8시 50분에 발매를 마감하며,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에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케이토토 캠페인 영상 ‘종이볼’ ‘확대경’ 편 눈길

건강한 토토 참여 독려 메시지 담아

(케이토토가 다양한 건전화 활동으로 건강한 스포츠토토 참여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케이토토는 건전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방안을 담은 캠페인 영상을 배포하고, 판매점을 대상으로 한 건전화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건전화 캠페인 영상의 경우 ‘종이볼’ 편과 ‘확대경’ 편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개되며 많은 스포츠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냈다.

‘종이볼’ 편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이외의 모든 스포츠베팅은 불법임을 강조하면서 유사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에 의거하여 명백하게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또 ‘확대경’ 편의 경우 장비와 허물이 없는 스포츠의 세계처럼 모두가 하나되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스포츠토토의 비전을 제시하며 더욱 건강한 참여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편 케이토토에서는 스포츠토토 판매점을 대상으로도 건전화 캠페인을 진행하



는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준비하고 있다. 판매점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의 경우 소액 및 소조합 구매 유도과 건전화 퀴즈 이벤트, 그리고 판매점 환경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스포츠토토 건전화에 앞장서고 있는 판매점주들에게 힘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토토 언더오버 8회차 발매

‘소액이라 더욱 재미있는 토토 언더오버에 도전하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의 인기 배당률 게임 ‘토토 언더오버’가 21일 오전 9시30분부터 8회차 발매를 시작한다.

3000원대 평균참여금액으로 소액문화의 묘미를 보여주고 있는 ‘토토 언더오버’는 승패를 맞히는 방식에서 벗어나 축구와 농구, 야구, 배구 등을 대상으로 5경기 혹은 7경기를 선정해 홈팀과 원정팀 각각의 최종득점이 주어진 기준 값과 비교해 낮은지, 혹은 높은지 등 다양한 상황을 예상해 맞히는 배당률 게임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번 8회차의 경우 23일과 24일에 열리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3경기과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2경기, 그리고 미국 프로농구(NBA) 2경기를 대상으로 토토판들을 찾아간다.

이번 ‘토토언더오버’ 8회차는 23일 오후 9시50분에 발매가 마감되며,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에 스포츠토토 홈페이지(www.sportstoto.co.kr) 및 공식온라인 발매사이트 벳맨(www.betman.co.kr)을 통해 결과가 발표된다.